

지역 소식통

정읍시,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장려상 수상

정읍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500만원을 확보했다.

올해로 4회차를 맞이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2019년부터 매년 열고 있다.

이번 발표대회는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제출한 70건 중 사전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14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심사는 내용 충실성과 청중 전달력, 질의응답 대응도를 반영한 현장 심사와 사전심사 점수를 합산해 평가했다.

시는 발표에서 "체납처분유예"라는 것이 있었나?"를 주제로 행정의 적극적인 사례를 소개해 심사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지방세 납세경쟁력 발단이 불가해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체납처분유예 제도를 안내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키르기스스탄 계절근로자 43명 입국

고창군이 지난 20일 키르기스스탄 탈라스주 외국인 계절근로자 43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밝혔다.

키르기스스탄 계절근로자는 지난 6월 심덕섭 고창군수와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관에서 협약한 내용에 따라 계절적으로 노동력이 필요한 농가에서 합법적으로 고용하게 된다.

근로자는 입국 후 PCR검사를 마치고 이태방치 교육,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무단이탈 발생 시 조치사항, 인권침해 예방교육 등 사전교육을 마친 후 관내 14농가에 배치돼 5개월간 근로하며 농촌인손을 도울 계획이다.

계절근로자는 5개월간 성실히 근무하고 본국으로 출국 후 고용주 및 고창군에서 재입국 추천하면 비자 발급시 서류 간소화 등 바로 입국해 근로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변산에 관광휴양콘도 조성

자광홀딩스, 2026년까지 2004억원 투자 계획

부안군은 권악현 부안군수와 (주)자광홀딩스가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관광휴양콘도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3년 시작해 오는 2024년 완료할 계획이며 1단계(2013~2017년) 사업에서 조성된 휴양콘도 부지에 민자유치로 관광휴양콘도를 조성하고자 민간사업자인 자광홀딩스와 지난 4월 투자협약에 이어 7월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실시협약에 따라 자광홀딩스는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내 변산면 대항리 612번지 4만 3887㎡ 부지에 오는 2026년까지 총 2004억원을 투자해 연면적 5만 6287㎡ 규모의 리조트 4동(7~11층, 74실), 프라이빗 빌라 5동(2층) 등 총 79실 규모의 프리미엄 휴양콘도미니엄을 조성할 계획이다.

세부 투자계획에 따르면 30평형에서 50평형에 이르는 다양한 평면 구성의 객실과 200평형의 독립적인 프라이빗 독채 인피니티 수영장과 400명 규모의 컨퍼런스룸, 패밀리레스토랑 등의 특화시설로 구성된다.

또 모든 객실에서 변산해수욕장을 조망할 수 있게 디자인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기자

콘도 부지매각대금 265억 5181만 6500원 중 계약금(10%) 26억 5518만 1650원을 계약 당일 납입 완료하고 계약체결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중도금(40%)을, 계약체결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잔금(50%)을 납입 받는다.

이후 민간사업자는 각종 인허가 절차 이행 후 오는 2023년 공사를 착공해 2026년 완료할 방침이다.

또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을 관광진흥법에 근거해 지난 5일 전북도로부터 승인받았으며 오는 2023년 상반기 내에 실시계획과 환지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 이행 후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2단계 사업을 2023년 9월에 착공해 2024년 12월 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농기센터, 농촌지도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기)가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한 '2022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에서 기술 보급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기술 보급 분야는 식량작물과 소득작물, 작물보호 3개 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시는 3개 지표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 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에 따라 시는 우수기관 사업비 7,000만원과 함께 시상금 150만원을 확보했으며, 내년도에 농업인 기술 지도를 위한 농촌지도 역량 강화 사업에 추매제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농업 신기술보급을 비롯해 농업인의 소득과 권익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4차산업과 함께 급변하는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식량작물 디지털 농업기술 보급과 신선 농산물 수출을 활성화해 농업인의 평균소득

/정읍=김대환 기자

향상과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했다.

이와 함께 농업과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을 접목한 맞춤형 자유농업 프로그램 운영과 농촌 체험 활성화로 소득 안정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농작물 생육 증진과 축산 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는 복합 기능성 유용미생물을 공급해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했다.

이 밖에도 농작물 병해충 예방과 생육상황 조사, 현장 애로 해결, 농작업 안전 재해 예방 등에 주력해 오고 있다.

정정기 소장은 "농업변화에 대응해 신속·역동적인 기술 보급 서비스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득과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일본내 유통·판매 전문업체와 협약 체결

복분자주·김·즉석냉동식품 등 연 10만불 가량 수출 성사

고창군 명품 농특산품의 일본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고창군은 고창 농특산품의 일본 수출확대를 위해 한국식품 수입업체인 거산재팬(주)(대표 이순배)과 수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를 단장으로 방일중인 고창군 방문단은 거산재팬(주) 도쿄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거산재팬(주)대표 이순배는 17년째 한국 우수 상품을 일본내 쿨0, 이베이, 아마존 등 온라인 매장과 오프라인 매장에 한국 식품을 유통·판매하고 있는 중견업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복분자주, 김, 즉석 냉동식품 등 연간 약 10만불 정도의 상품의 수출이 진행될 예정이다.

거산재팬 이순배 대표는 "한국 상품

/고창=김영식 기자



을 오랫동안 취급해 왔지만 고창군이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농특산품이 생산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출확대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농기센터, 농촌지도사업 평가 대상 수상

부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는 20일 전라북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에서 대상 수상해 시상금 9천만원과 시상금을 3백만원을 전북농업기술원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는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주관으로 매년 전라북도 14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농촌지원, 자원경영, 기술보급 등 3개분야의 사업지표와 지역농업·농촌활력화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우수시군을 선정하는데 2022년에는 부안군농업기술센터가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지난 11월 22일 농촌진흥청 주관 2022년 농촌지도사업분야 경진에서 전국 우수기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올해 부안군농업기술센터는 그동안

/부안=김석진기자

숙원이었던 농업기술센터 청사 완공과 더불어 연구부 기관상을 수상하는 결실을 맺었다.

부상으로 받은 시상금 3백여만원은 농촌지도역량강화교육, 플리마켓 운영, 관민미생물 활용 실증사업 시아비로 편성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혜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인 응모가득, 행복한 부안농업 실현에 비전을 두고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부안농업의 발전을 위해 최일선에 서서 영농현장 서비스 강화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는 전문농업인 양성과 미래세대 청년농업인 육성 및 맞춤형 귀농귀촌 확대지원, 스마트 농업 확산으로 과학영농 실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부안군, 우체국쇼핑 연도대전 우정사업본부장 표창

부안군은 21일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우정사업본부가 주관하는 2022년 우체국쇼핑 연도대전에서 공공부문 우정사업본부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e-커머스를 확대하고자 사회적응업IT협과 부안우체국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안의 우수 농특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매년 우체국쇼핑을 통해서 농어가·소상공인 동반성장에 기여해왔다.

군은 우체국 쇼핑물을 통해 부안군

/부안=김석진기자

로컬푸드인 동진감자와 천년의 솜씨 쌀 등을 프 로모션 해 총 15억 원의 매출을 달성, 전년 동기 대비 7억 원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

특히 청년농어가 및 지역 영세업체

/부안=김석진기자

등 경쟁력은 있으나 온라인 판매 경향이 적은 농가를 직접 발굴하고 우체국쇼핑물에 상품을 런칭, 청년농어업인과 중소농가의 판로 확대를 위해 앞장서 왔다는 것.

또한 우체국 쇼핑물 판매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 개발을 위한 현장 컨설팅을 전개하고 부안로컬푸드 농가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교육을 진행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매진해왔다.

/부안=김석진기자

부안군, 태안유류피해 극복 세계기록유산 인증

부안군은 지난 20일 자체 보관 중인 태안유류피해 극복 관련 기록물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인증받았다고 밝혔다.

군은 19개 기관·단체 및 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청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인증서 수여식에서 지자체로는 태안군 및 당진시와 함께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이번 인증서 수여는 태안유류피해 극복 기록물이 지난 11월 28일 경북 안동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MOWCAP) 제9차 총회를 통

/부안=김석진기자

해 세계기록유산 지역기록으로 등재된데 따른 것으로 유류유출 사고와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와 개인들이 기록·생산한 22만 2100건의 다양한 매체의 자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부안=김석진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